Entertainment p/14

앙다리 걸치는 재미 쏠쏠

metro

World p/04

日 도쿄 2020 올림픽 유치

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 포함

NEWS p/02

올해수능 재수·반수생 줄었다

NEWS p/03

LG, 하루만에 1위 탈환

SPORTS p/20

metro

메트로 2013년 9월 9일 월요일 제2610호 www.metroseoul.co.kr

등박이는 추석 물가 "그래도 과일은 싸요"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8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이들이 선물용·제수용 과일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올해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가격이 각각 8%, 2% 내린 상태로 추석 4~5일전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결국 쫓겨나는 '샐러리맨 신화'

"일 맡으면 내가 오너" 강덕수 STX그룹 회장 채권단에 의해 사실상 퇴출

대한민국 샐러리맨과 재계·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자산(24조원) 기준 재계 13위인 STX그룹 강덕수(사진) 회장이 채권단의 압박으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대다수 현 대기업 오너와 달리 상고와 야간대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니던 회사(쌍용중공업·현 STX중공업)를 자신의 돈으로 산 CEO(최고경영자)이자 오너인 만큼 살아있는 '샐러리맨 신화'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STX조선해양 새 대표이사로 추천함에 따라 퇴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9일 이사회와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없다면 강 회장은 직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룹 지주사인 STX와 STX중공업, STX엔진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채권단이 돈줄을 쥐고 있어 완전 퇴진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야간대 핸디캡 딛고 오너로

강 회장은 월급쟁이 사이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통한다.

인맥과 스펙이 출세 조건인 한국 사회에서 탁월한 업무 감각으로 30대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1995년 쌍용중공업 이사, 2000년 쌍용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강 회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단문형 순한글 공채 광고를 만드는 등 기획과 마케팅 분야에도 두각을 드러냈고 사원 채용 면접을 직접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그가 평소 지인들에게 "월급쟁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일을 맡으면 내가 오너"라고 말한 것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다.

IMF로 쌍용그룹 경영난이 악화되자 당시 쌍용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였던 강 회장은 전 재산을 밑천으로 회사를 인수했다. 월급쟁이에서 오너가 된 그는 2001년 STX를 만들었고 선박 엔진을 중심으로 조선업, 해운업 등으로 사업을 늘리며 재계 13위까지 사세를 확장했다.

STX는 출범 10년 만에 2011년 매출 100배 성장, 임직원 수는 909명에서 6만7000명으로 75배나 증가했다. 경쟁 기업 입찰가의 2배를 써내는 화끈한 인수전은 업계 전설로 남았다. 전 세계가 놀란 성장 속도와 업계 최고 대우 등으로 국내외 유수 인재들에게 STX는 '신의 직장' 중 하나였다.

하지만 STX 성장 엔진이었던 강 회장의 공격적인 투자는 2009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그룹 수익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는 STX의 수익 구조는 최대 약점이 됐고 과도한 인수합병(M&A)에 따른 부채 증가는 추가 수주를 어렵게 했다.

이번 퇴진 사태는 '채권단과 STX 노조', '샐러리맨과 금융계'의 대결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채권단이 인사압력 월권논란

노조는 법정관리가 아닌 자율협약을 체결한 만큼 채권단이 경영·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채권단은 그동안 STX에 들어간 돈만 5조원이고 앞으로도 3조원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대기업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 회장에게 '패자부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에서는 이 곳에 들어오고 나가야 할 돈에 초점을 맞춘다. 설립한 지 12년 된 STX가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성훈·장윤희기자 zen@metroseoul.co.kr

SM 'K-팝 수출' 1000억 돌파

1년새 2배 이상 급증…YG도 216억원 늘어

글로벌 K-팝 열풍이 문화 콘텐츠 수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상장사 수출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2011년에 비해 막대한 수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가요계 양대 산맥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수출을 주도했다. 동방신기(사진)·소녀시대·슈퍼주니어·샤이니 등을 앞세운 SM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 1036억원의 수출을 기록했다. 2011년(48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싸이와 빅뱅·2NE1의 해외 활약이 돋보인 YG는 534억원으로 2011년보다 수출액을 216억원 늘렸다.

CJ E&M의 음악산업 수출액은 2011년 36억원에서 2012년 158억원으로 4.5배 이상 뛰었다. 수출액이 없던 로엔엔터테인먼트도 2011년 처음으로 37억원을 신고했고, 소리바다의 수출액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2년 46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제수지 항목 가운데 '한류수지'로 불리는 문화·오락 관련 서비스 수지는 2010년 한 해에만 3억8000만 달러(약 415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만년 적자를 내온 분야였으나 한류 확산에 힘입어 2011년 처음으로 8590만 달러(약 935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2년 사이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K-팝이 세계 곳곳에 소개됐고, 국내 가수들의 해외 공연 지역과 규모가 대폭 확장한 것이 상장사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유순호기자 suno@

졸음 부르는 버스 '꺾기교대' 금지

내년부터 과징금 부과

서울시가 졸음 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되온 버스기사들의 '꺾기 교대'를 금지한다.

서울시는 8일 꺾기 교대를 해온 시내버스업계 2곳에 개선명령을 하고 전체 업계 64곳에도 꺾기 교대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꺾기 교대는 변형된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첫날 오전 근무(첫차~오후 1시), 둘째 날 오후 근무(오후 1시~막차)를 한 뒤 셋째 날 다시 오전 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오후 근무 후 바로 다음날 오전근무를 하면 수면 시간이 짧아 졸음 운전을 하기 쉽지만, 그 다음 날 전일 휴가를 얻을 수 있어 기사들이 선호하며 버스업체들도 관행처럼 눈감아줘 왔다.

"일본산 속일라"…명태·돔 등도 이력신고 의무화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수입 명태(생태·동태), 돔, 가리비를 오는 16일부터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의 유통 이력 관리 품목은 수산물의 경우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품 유통 이력 관리는 2009년 1월부터 원산지 둔갑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 거래 내용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성묘 미리미리 8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성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

법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포함시켜야"…노동계 손 들어줘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8일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43)씨 등 14명이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이 역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저 근육 어때요" 8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43회 미스터 YMCA 선발대회에서 여성 참가자들이 근육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이석기에 사형 가능한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국정원은 또 'RO'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잠깐만 / 메트로 포토 캠페인

도 넘은 사랑 – 이쁨 되면 '공해' 젊은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은 보기 좋지만 지하철 전동차 내부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도를 넘어선 애정 표현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랑 표현은 지하철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제공

영어 'A형' 30% 넘었다

올수능 어려운 B형서 갈아타기 – 반수·재수생 크게 줄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B형을 선택한 비율이 68.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1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65만752명으로 작년보다 1만7770명(2.7%) 줄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전체의 78.2%인 50만9085명, 졸업생은 12만7635명(19.6%), 검정고시 등은 1만4032명(2.2%)이다. 졸업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1만4926명(10.5%) 줄어 소위 '반수생'이나 재수생, 삼수생이 감소하는 추세가 강화됐다.

재수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재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정시 모집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영어 B형의 선택 비율은 3월 학력평가에서 87.2%를 기록한 뒤 6월 모의평가 82.3%, 7월 학력평가 80.0%, 9월 모의평가는 75.1%로 꾸준히 떨어졌다.

입시업체들은 영어 B형의 선택 비율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중상위권 대학이 영어 B형만을 반영하는 데다가 내년도부터 영어 영역에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됨에 따라 쉬운 A형으로 '갈아타기'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장윤희기자 mlsm@metroseoul.co.kr

가을 잡는 동심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벼 농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곤충채집을 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코엑스서 한·일 '하나로'

한일축제한마당 행사 열려

'한일축제한마당 2013 in 서울'이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움트는 희망, 미래로'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연·관광·체험 부스는 물론 기업체 부스도 유치해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코스프레 사진 콘테스트, 보도존 등 체험 행사도 열린다.

3부로 나눠 열리는 행사의 진행은 일본 여배우 후지이 미나와 한석준·이지홍·성세정 아나운서가 맡는다.

지난 2005년 9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로 시작한 한일축제한마당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한국과 일본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양국 최대의 문화 교류의 장인 한일축제한마당은 명실공히 풀뿌리 교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행사 때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축제를 즐겼으며 한·일 양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일축제한마당 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2)702-7775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중국 공산 혁명의 아버지 마오쩌둥 사망

1976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83세를 일기로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초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를 타이완으로 축출하고 중국을 통일해 초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주석으로 재직했다. 그 후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대표되는 급진 정책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었으나 5000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초래해 악명 높은 학살자로 평가절하 되고 말았다.

젊은 남자여, 책 좀 읽어라 여성 모델들 '섹시한 유혹'

metro Russia

러 홍보 포스터 '논란'

최근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개막을 기념해 러시아 도서연합이 이색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도서연합은 책을 잘 읽지 않는 러시아 젊은층을 겨냥해 섹시한 포스터와 광고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와 광고에는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 요염한 포즈로 독서를 하며 자신의 이상형은 지적인 남성이라고 말한다.

'엑스모' 출판사의 마케팅 팀장인 블라디미르 지제린은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젊은층을 겨냥해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며 "중·장년층에게 독서를 장려하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제린은 "현재 러시아 젊은층의 독서 실태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젊은 세대의 40%가 독서를 하지 않으며 지난 일 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터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특히 젊은 남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에로틱'한 포스터를 본 뒤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서와 성적인 부분을 접목한 이 홍보물을 이해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독서 장려 효과만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홍보물을 제작할 생각"이라며 "젊은 여성들을 위한 포스터와 광고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리학 박사 이리나 아이라야츠는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5대 요소에 지적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독서 장려를 위해 성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디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일본 도쿄 '방사능 불안' 딛고 2020 하계올림픽 유치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됐다고 발표하자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쭐 아베' 우경화 가속

올림픽 후광효과 활용 집단 자위권·개헌 등 밀어붙일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로 거침없는 '아베 질주'를 이어간다.

8일(현지시간) 아베 총리는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을 15년간 계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국민적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한 그의 돌파력은 올림픽 유치로 빛을 봤다.

특히 5~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장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가 막판 선거운동을 벌인 점은 그의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올림픽 유치에 내형 악재로 작용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그의 위기대응 능력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올림픽용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5000억원대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압승하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았다. 여기에 올림픽 유치로 국민적 인기와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향후 아베 내각은 국내외 현안을 처리할 때 과감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소비세 인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 민감한 경제 현안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개헌 등 정치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올림픽 후광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도쿄 탈락' 릴레이 오보… 속마음 들킨 中언론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일본 도쿄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CCTV와 신화통신이 오보를 내보내 망신을 샀다.

CCTV는 8일 오전 12시30분(현지시간) 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가 끝난 뒤 같은 표를 얻은 터키 이스탄불과 스페인 마드리드가 결선 투표 진출자를 가리고자 재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도쿄가 탈락하고 이스탄불과 마드리드가 진출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역시 이스탄불과 마드리드가 2위를 놓고 재투표를 한 것을 결선 투표로 착각했는지 이스탄불이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보 사태가 중국 언론의 '속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올림픽 개최가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The 29th Shinhan Donghae Open Since1981

제29회

신한東海오픈

총상금 **10억원** 2013.9.26(목)~9.29(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G.C.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나의 금융브랜드 신한금융그룹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1955.31 (+3.66)	523.77 (-4.29)

금리	환율
2.19	1092.50 (-6.00)

뉴스 & 뉴스

뉴욕패션위크에서 슈퍼모델 예쁜 몇슨이 갤럭시 기어를 착용한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갤럭시기어' 뉴욕패션위크 등장 화제

●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기어'가 뉴욕 패션위크에도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패션위크에 갤럭시 스튜디오를 마련, 갤럭시기어와 갤럭시노트3, 2014년형 갤럭시노트10.1 등을 전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갤럭시기어는 차별화된 패션 아이템으로 뉴요커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뉴욕 패션위크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행사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서재용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

●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매매가도 보합세로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이나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매기가 살아났고, 중소형 아파트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김민지기자

장난감·유모차 중고사이트 클릭!

김민지 기자의 짠순이 주부 경제학

중고나라·아이베이비 등 인기… 흥정 잘하면 할인

아이를 낳아 기르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은 육아용품과 전쟁을 해야 한다.

쏘서, '점퍼루', '바운서' 등 연령에 따라 필요한 장난감들은 왜 이리 많은지… 별천지가 따로 없다.

하지만 착착한 살림을 생각하면 값비싼 장난감들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렇다면 중고 육아용품 사이트를 활용하면 어떨까.

제값 치르고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버리기엔 아까운 육아용품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 우선 회원 수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이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장난감의 정품 여부도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꼭 물어봐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고품의 묘미는 가격 흥정이 아닐까.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거나 가격이 조금 비싸다면 에누리를 할 수 있다. 단 지나치면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부들이 즐겨 찾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로는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와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 아이베이비(www.i-baby.co.kr)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 고장 난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도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역사에 있는 녹색장난감도서관 내의 키즈뱅크에선 매주 목요일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해준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키즈뱅크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seoultoy.or.kr)에서 회원 승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kmin@metroseoul.co.kr

KT 황금주파수 홍보 '달콤하네' KT는 8일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에 앞서 서울 종로, 대학로 등지에서 행인들에게 황금초콜릿을 나눠주며 황금주파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IPTV업계 'UHD 시장' 선점 경쟁

LG유플 이어 SK브로드밴드도 12일 시험방송

IPTV 업계와 케이블TV 업계가 초고화질(UHD) TV 시장 선점을 위해 불꽃튀는 경쟁을 펼친다.

UHD TV 방송은 기존 풀HDTV보다 4배, HDTV보다 16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방송 기술로 뛰어난 현장감을 제공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LG유플러스가 IPTV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UHD 시험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2일 SK브로드밴드가 UHD 시험 방송 송출 시연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별도 전용선이나 테스트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광랜 100Mbps)을 활용해 UHD 시험 방송에 성공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LG유플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UHD 방송을 송출할 전망이다.

케이블 업계는 내년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5대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들은 지난 7월 UHD 전용 채널을 개설, 시험 시연을 실시했으며 LG전자는 케이블 내장형 UHD TV를 개발해 이를 지원했다.

케이블 업계는 2017년까지 6400억여 원의 시설 투자, 2016년까지 콘텐츠 수급에 800억여 원의 투자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건설단신

쌍용건설 'DTL 921' 현장 싱가포르 안전대상 수상

쌍용건설이 시공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4일 열린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도심지하철(DTL) 2단계 921 현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해 현재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을 치밀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안전 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창조경제 시범사례로 선정

한화건설이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글로벌개발협력포럼에서 '해외 신도시 개발 창조경제 시범 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창조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한화건설 신완철 상무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에는 100여 개 협력업체와 1500여 명의 국내 인력들이 진출함에 따라 연인원 55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또복권 제561회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1	13	17	20	31	3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196,194,974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1,988,003
3등	5개 숫자 일치	1,195,85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2층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성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91

노인성 질환 있어도 무심사 가입

라이나 '실버암보험' 화제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연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정혜인기자 ssing@

와! 사무실 유지비용 제로

신논현역세권 비즈니스센터 '더좋은 비즈스퀘어' 탐방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이른바 비즈니스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센터는 1~5명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월 단위로 임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스타트업' 기업에 적합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 '더좋은 비즈스퀘어'에서 공간과 문화를 체험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지문인식기가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30실 가량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지문을 저장할 수 있다. 평일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출퇴근 보안이 중요하다.

사무실은 1명이 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최대 5명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하다. 인원 수에 맞춰 책상과 의자가 설치돼 있고 책장이 2~3개가량 제공된다.

사무실 공간은 티테이블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야말로 일에 집중하는 구조다.

대신 회의실 두 곳이 따로 있다.

임대료는 역세권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1인용이 35만원에서 시작하고 5인실은 145만원까지 받는다. 창과 공실의 유무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1년 이상 장기 계약 시 5% 할인된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전기세와 같은 각종 생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 복사기, 팩스기, 스캐너, 정수기 이용료는 물론 경제 신문도 공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무실을 이용하려면 월 4시간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숙식이 불가능한 것도 비즈니스센터의 특징이다.

/박성훈기자 sen@metroseoul.co.kr

日 애니 대부의 '마지막 선물'

뉴스룸에서
조성준
<연예스포츠부장>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홍보를 위해 지난 7월 하순 일본 도쿄 외곽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마주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본 군국주의 미화 여부 등 작품 속 역사관을 캐묻는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72세의 노구를 이끌고 때론 일어서면서까지 무척 성심성의껏 답했다.

재패니메이션의 신(神)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추앙받는 미야자키 감독이 그 와중에 "별것 아닌 문제로 한·중·일의 사이가 나빠져선 안된다"고 말한 대목에선 기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별 것 아닌 문제'가 마치 "과거사에 쓸데없이 매달리지 말자"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간담회가 마무리된 뒤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담담한 어조로 "별 것 아닌 문제란 아베 정부를 뜻한다. 곧 물러날 아베 전 일본 총리로 인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얘기"라며 속뜻을 설명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인 스태프가 웅성거렸다. 칠순의 노감독이 혹시라도 아베 정부로부터 실해를 당할까봐 꽤 긴장하는 눈치였다.

50년 넘게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노래해오던 미야자키 감독이 지난주 은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웠다. 본인은 "체력적 한계를 느꼈고 이제는 할 만큼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부와 이로 인한 일본 사회의 퇴보 움직임이 창작의 의욕을 빼앗아간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속상했다.

이번 작품에 대한 일부 한국 관객들의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주력기였던 제로센의 설계자 호리코시 지로를 다룬 걸 보니 미야자키 감독도 이젠 다 됐다'는 비판도 그의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아쉽다.

영화를 꼼꼼하게 봤다면 미야자키 감독이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극의 메시지가 격변의 시대를 살다 간 아버지 세대에 바치는 연민 어린 헌사란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소재부터 문제 삼고 보는 우리네 관람 풍토가 지나치게 예민해 보여서다. 창작자의 의도가 수용자의 해석까지 좌우할 수 없다는 예술 작품의 숙명을 전제해도 말이다.

일본이란 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구석이 있다고 믿는다. 노감독의 담백한 퇴장과 그의 은퇴작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반응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경제위기 속 '비상등' 끈 경제팀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성적인 저성장의 그늘 속에 겉보기엔 그럴듯하나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다. 바닥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117위이다. 그것도 삼성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현대의 자동차 등 몇몇 업종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를 걷고 있으며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서민들의 바닥 경기는 얼어붙어 있다. 1000조원을 넘나드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전례 없는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외교 안보에 대한 신뢰도 덕분에 6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니 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조차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19위에서 25위로 밀려 한 해 사이에 6단계나 내려갔다.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 지난주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노동 시장의 효율성 하락이 크게 작용됐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사협력 부문은 148개국 가운데 132위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성숙되지 않은 금융시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해 사이에 71위에서 81위로 밀려났다.

우리 경제는 고른 분야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능력은 기대 이하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소비 수요가 막혀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 조절 능력을 살리지 못한 채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설프게 내놓아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금융기관 등의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이번 9월 정기국회 역시 파행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직시하고 비상 체제를 갖춰야 한다. 사실 현오석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느슨한 정책을 폈다는 반증이다. 경제부처가 늦은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하기를 대다수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포토프리즘

오랜만에 활기 찾은 노량진 수산시장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8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이 오랜만에 북적이는 손님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에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숫자"라며 "이번 정부 조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전업주부는 돌아가고 싶다

기자수첩
박지원
<생활경제부 기자>

스타벅스가 출산이나 육아 부담으로 퇴사한 스타벅스 여성 근로자를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란다.

최근 스타벅스처럼 워킹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제도를 마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육아 및 가사 전념자 수는 721만9000명. 15세 이상 인구 6명 가운데 1명꼴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과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그러나 수많은 워킹맘들은 다시 일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두 달 전 CJ그룹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 150명을 뽑는 데 2530명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또 지원자 73%는 "직장을 그만둔 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성들이 결혼·출산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같은 치열한 현실을 뚫은 '리턴십' 여성들은 10월 말부터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취업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면 경제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부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다니엘서'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성서의 '다니엘서'에는 고대 페르시아·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이어 알렉산더 제국 역시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있다.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한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대인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실제로 쓰여진 것은 기원전 3세기라고 보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계승한 한 갈래인 셀레우코스 제국에 의해 대학살의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에피파네스 4세는 헬레니즘을 단 하나의 생명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이를 거부하면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미래보다는 당대의 고난을 말하는 동시에 이것이 끝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의 선포이기도 한 셈이다.

1931년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계 작가 E. L. 닥터로는 1971년 소설 '다니엘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은 1953년 (재판 당시부터 무죄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원자폭탄 제작 기밀을 소련에 넘겼다는 죄명으로 사형당한 유대인 로젠버그 부부 사건을 소재로 했다. 1950년대 냉전시대의 집단 히스테리 매카시즘을 비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집필한 닥터로는 로젠버그 부부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작슨 부부의 아들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다니엘은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유로 사형 당하게 됐는지를 추적해 나가는데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이다. 반전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를 말한다는 것은 성역을 침범하는 일이 됐고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모순의 벽을 뚫고 나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마치 한 권의 뛰어난 추리소설처럼 논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흥미진진하게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증언은 대단히 입체적이다. 그런데 이 영화 상영을 막으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성역 침범이라는 것이자,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의 기준만 진실이라고 통용되는 순간, 그것은 생각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 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신이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을 가졌다.

허리 끊어질듯한 통증 오래 묵히면 큰일

유상호병원이 알려주는 만성 골반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최근 만성 골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골반 주위의 근육, 인대 손상이나 석회에 의한 병변을 간과하고 대부분의 골반 통증을 단순히 요통에 의한 전이통으로만 간주해 진단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대해 유상호병원 유상호(사진) 병원장은 "요즘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골반 통증과 고관절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성 요통은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의 이완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스크, 퇴행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런 요통은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또 골반에 직접적인 병변이 없어도 요통 자체에 의해 둔부와 골반의 연관통 및 전이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골반통과 고관절 통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우리가 흔히 허리가 삐었다고 할 때 발생하는 장요인대 이완의 손상'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골반 외측 근육 부착부의 손상이나 점액낭염,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쪼그리고 앉을 때 발생하기 쉬운 고관절 전방 관절순의 손상, 스포츠나 과다 작업으로 인해 흔하게 일어나는 골반 후방 햄스트링근육 부착부의 손상, 골반의 석회성 건증 등이 있다.

> 인대 손상이 원인일때 프롤로 인대 강화주사
> 석회성 건증일 경우엔 초음파 유도하 제거술
> ”

게다가 하지로 내려가는 경상좌골신경은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밑을 지나 하지로 나와야 하는데 이상근을 뚫고 나오거나 표층을 지나는 이상근 증후군 등이 골반통 및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골반 통증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 역시 각기 다르다.

우선 점액낭염, 관절순 및 근육과 인대 손상의 경우 프롤로 인대강화주사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고삼투압 용액을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해 손상된 힘줄과 인대를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다. 석회성 건증의 경우 가는 주삿바늘을 이용해 석회를 직접 제거하고 석회가 빨리 녹는 약물을 주입하는 초음파 유도하 석회제거술(FIMS)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상근 증후군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로는 일시적인 호전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는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질환이 반복되면 주위 근육에 더 큰 손상과 석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상호 병원장은 "대부분의 골반통 환자는 요통과 골반통을 동시에 앓고 있으므로 경추·요추 등 척추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능력뿐만 아니라 골반 및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총괄팀기자

푸르밀 "임신부 장 건강 책임집니다"

중앙C&C '메터니티스쿨' 신제품 'Dole프리미엄' 협찬

유산균 발효유 '비피더스'로 잘 알려진 유가공 전문기업 푸르밀(옛 롯데우유)이 이달부터 임신부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강좌 메터니티스쿨에 제품 협찬을 시행, '임신부 장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C&C에서 주최하는 메터니티스쿨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기 강좌다.

푸르밀에서 메터니티스쿨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푸르밀의 프리미엄 신제품인 떠먹는 요구르트 'Dole프리미엄'이다.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이 함유된 프리미엄 떠먹는 요구르트로 세계적인 청과 브랜드 돌(Dole)에서 품질을 인증한 과육이 들어 있다. 푸르밀 관계자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 후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장 정착률이 높고 변비 개선 등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제품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ole프리미엄은 딸기, 복숭아,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 총 4종으로 가까운 할인매장과 슈퍼에서 판매한다.

푸르밀은 이번 협찬을 통해 Dole프리미엄이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임을 알리면서 배 속 아기들까지 향후 고객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푸르밀 관계자는 "푸르밀의 대표 상품인 비피더스를 비롯해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으로 품목을 다변화해 푸르밀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천효순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신랑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받으세요!

주말 허니문 상담회

찾아오시는길

종각역

허니문 주말상담은 언제? 어디서?

일시 2013년 9월 7일(토요일)/2013년 9월 28일(토요일)

장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하나투어 본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빌딩 2층)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고객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주말 상담회 현장할인 최대 60만원!

할인제외 상품: 프리텔, 연합상품, All-in 상품, 허니문팩, 슬림상품 및 특수지역상품

※ 일부 상품은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EVENT 02 주말상담 현장 예약 특전!

❶ 상담 고객님께 차 or 커피제공

❷ 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 허니문 계약하시는 고객님께, 영화예매권 2매/필립스 전기포트를 쌍당 1개 증정해 드립니다

하나투어가 만든 웨딩컨설팅 브랜드 H웨딩!

웨딩 & 허니문 One-Stop Service, 웨딩 패키지와 허니문을 한번에 준비하세요!

MOVIE TICKET

H Wedding

wedding.hanatour.com

허니문 상담팀 02)2127-1234

바쁜 연예인들도 10분이면 디스크 치료 끝

가수 휘성도 치료받은 강남조이스병원 고주파 특수 내시경 시술 눈길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다 얼마 전 전역한 가수 휘성은 제대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군 복무 당시 급성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던 휘성은 담당 주치의 강남조이스 병원 조성태 병원장으로부터 제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재발을 진단받았다. 휘성은 국소마취하에 10여 분간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바로 퇴원할 수 있었다.

◆짧은 시술 시간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치료 가능해

1년 전부터 강남 조이스 병원에서 시행했던 이 시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달리 국소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해 탈출된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조성태 병원장은 "이 시술은 다른 시술에 비해 길지 않은 시술시간과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인해 수술이 힘든 환자들도 시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이 어려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환자 및 노인에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란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직접 아픈 부위를 들여다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쏴 염증을 제거하면서 신경근 유착을 없애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이다.

◆근본적인 치료가 먼저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성형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여러 시술을 하며 시술 이후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강남 조이스 병원에서는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이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환자 개인을 전담한다. 이들은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1대4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이들은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도수 감압 운동 치료'에 중점을 두는데 도수 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척추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을 풀어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다.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병원 측은 말했다.

현재 강남 조이스 병원은 서울대입구역에 본원이 있고 홍대입구역에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10~20대 키 크고 마른 남성 '기흉' 조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2007~2012년) 기흉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절반이 10~20대 젊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흉 전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4000명에서 2012년 2만6000명으로 연평균 1.9%씩 증가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2만3000명, 여성은 4000명이 진료를 받아 남성이 여성보다 6배가량 많았다.

특히 2012년 전체 수술 환자 1만2000명 중 10대가 34.3%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1.8%, 30대 10.6%, 70대 8.9% 순이었다.

홍기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기흉은 주로 10대에서 20대 후반 사이 야위고 키가 큰 체형의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고 흡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대의료원 위 대장암협진센터 '비빔밥 만들기' 행사 이대의료원이 최근 위암 대장암협진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홀에서 '환아들 모셔 예방 건강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순남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권 병원장, 정성애 교수를 비롯한 위대장암협진센터 의료진들은 환우 및 가족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쾌유를 빌었다. /황재용기자

KYJ 김영주골프
KLPGA 2013 Tournament
MBN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기념
추석맞이 세일전
기간 2013. 9. 9(월) ~ 9. 30(월)
장소 김영주골프 전국 매장
시간 매일 오전10시 ~ 오후8시
(토,일요일도 정상영업)

이의정 '거짓 파산' 들통

6년전 소득 은닉 '빚탕감'

배우 이의정(사진)이 6년 전 파산 결정을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던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이듬해 12월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나 김모씨는 이의정이 2006년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며 2008년 12월 면책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면책 취소사유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심의 면책 결정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이의정을 채무 면책했으며 김씨는 4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유순호기자

동방신기 13번째 '오리콘 주간차트' 1위 도전

동방신기가 일본 오리콘 통산 13번째 싱글 주간차트 1위에 도전한다.

이들은 4일 출시한 38번째 싱글 '스크림'으로 정상을 노리고 있다. 발매 첫 날 일본의 인기 걸그룹 HKT48의 '멜론주스'에 밀려 2위를 차지만 이후 1, 2위 자리를 주고받는 접전을 벌이다 7일 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 노래는 일본 공포영화 '사다코 3D 2' OST와 TBS 보도 프로그램 '비루모바' 등 여러 방송의 테마곡으로 사용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순호기자

길다! 티아라 '왕따 그림자'

1년전 모델계약 해지했던 샤트렌 광고물 철거 늦자 반환금 4억 집행정지 소송 재판부 "피고에 손해" 기각

걸그룹 티아라가 1년 가까이 '왕따 논란'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왕따 논란을 이유로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모델료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7월 멤버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을 빚자 샤트렌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티아라 측도 이에 합의하고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샤트렌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이후 약 2개월 동안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었다"고 원고에 대한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9월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했고, 멤버인 은정이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 통보를 받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왔다. 이후에도 멤버 교체가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해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은 결국 큐리·보람·소연·은정·효민·지연 등 6명의 원년 멤버로만 팀을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정규 2집 '트레저 박스'로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4위를 차지했고, 최근 5개 도시를 도는 전국투어에 돌입하는 등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티아라는 해외에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올해 말 국내에 컴백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유부남 A – 20세 연하 '포차밀당'

연예가 소곤소곤

▶유부남 스타 A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불타오르는 여성 편력을 자랑했습니다. A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시내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자신보다 스무 살은 어린 20대 여성을 처음 소개 받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는데요. A는 게임을 주도하며 노골적으로 여성에게 술 공격을 퍼부었고, 여성이 취하자 지인들은 마치 계획한 듯 두 사람만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능숙한 솜씨로 취한 여성을 이끌고 인근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많은 이들이 보는데 A가 불순한 마음으로 여성에게 접근했을 리가 없다. A는 술도 사고 휴식도 제공해주는 친절한 떼너남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 일베 논란 크레용팝 홍보 강화
최근 '빠빠빠'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색 걸그룹 크레용팝의 소속사가 기자 출신을 새로 영입해 홍보 라인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표절과 '일베'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물론이고, "선물 대신 현금을 받아 기부하겠다"던 계획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미숙한 언론 대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라"는 권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그 중에서 특히 가요 홍보는 영화나 방송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메이저일수록 홍보 파트에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면서 "크레용팝의 소속사도 최근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 정우성 '절친' 이정재 동네 이사
연예계의 둘도 없는 '15년 절친' 이정재와 정우성이 이웃사촌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정재가 살고 있는 강남 삼성동의 한 고급 빌라에 정우성이 이달 말 입주하는데요. 이정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됐다. 매일 함께 술을 먹을까봐 걱정인데 안 그러려고 한다"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또 "영화 '태양은 없다'를 함께 찍은 후 늘 동반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을 찾고 있는데, 이견이 맞지 않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우성이 자신의 감독 데뷔작에 출연을 제의한다면 당연히 하겠다"는 말로 오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연예부

伊 다큐 '사크로 GRA' 베니스 황금사자상 수상

다큐멘터리 '사크로 GRA'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도섬에서 막 내린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감독 지안프랑코 로시가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로마의 외곽 순환도로 GRA 주변에서 살아가는 응급 구조원과 매춘부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을 담았다.

올해 한국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만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았을 뿐 단 한 편도 경쟁 부문에 오르지 못했다. /조성준기자 when@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12화 글·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30세기 우주가 21세기 지구에게 말을 걸다!

우주로 진출한 인간들이 수많은 행성을 배경으로 펼치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

영국의 대표적인 SF 작가이자 《SF 백과사전》의 편집장이었던 브라이언 올디스는 "SF란 혼란스럽고 진보한 미래의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변하지 않는 정의와 위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외(外)우주'를 배경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SF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내(內)우주'를 담아내야만 진정한 SF라는 것이다. '보르코시건' 시리즈의 저자 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는 이 정의에 동의한 사람이다. 30세기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대한 스토리에서 보여지는 세 명의 캐릭터, 자유와 평화의 상징 코델리아, 명예와 충정의 상징 마일즈, 장애를 극복하고 우뚝 선 주인공 마일즈, 그들이 내뱉는 대사 한 줄 한 줄을 읽다보면 광활 그러한 사랑이 존재하는 앞 느낄 만큼 현실감있는 인격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갈구하고, 현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번역가 김창규 씨는 "보르코시건 시리즈는 한마디로 인물 중심의 모험담으로서, 일반적인 SF소설과는 달리 따뜻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이라며 이 시리즈를 호평했다. 이것이 바로 '보르코시건' 시리즈가 SF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요소이다. 지난 20년 동안 장르 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네뷸러상, 휴고상을 수차례 수상하고 세계 21개국에서 스테디셀러로 사랑을 받아온 명품 SF '보르코시건' 시리즈를 만나보자.

■ 전자책은 www.ridibooks.com/리디북스에서 제공, 1권, 2권의 1부는 무료
■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및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날씨

9/9 月 일출시각 06:09 일몰시각 18:5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836.cc.kr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지므로 스키프니 목도리 등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제공=보누스 '인사 스도쿠 플래티넘'(아이를 레오스 지음)

명함 이모저모

임정선의 모놀로그

보통은 집에서 나홀로 글을 쓰는 생활을 하는데 최근 이런저런 일로 외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됐다. 따라서 직접 만나면 나는 명함이 없어도 담당자들의 명함은 받게 된다. 그런데 공손히 받고 난 후 집에 갖고 와서가 조금 난감하다. 대개는 책상 위에 며칠 놓였다가 좀 쌓였다 싶으면 잡동사니 정리용 수납함에 다른 명함들과 함께 들어가고, 매년 연말 그 대부분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그 사이 그 명함들을 다시 들춰본 일은 결혼식 없었다. 이미 최소 한 차례는 e메일을 교환한 바 있고, 모든 인간 관계가 촘촘히 엮여있고 온라인도 있어 정말 필요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만난 당일 명함을 바로 처분하기엔 인사 나누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남편은 그런 천재전병 행 명함들을 지금 읽는 책의 책갈피로 사용한다.

나도 회사원 시절 새 사람들을 만나면 날렵한 동작으로 척척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나눴다. 얼마전에 책장 정리를 하다 보니 사진 앨범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두터운 명함첩도 몇 권씩 나왔다. 이름들은 물론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마찬가지로 나의 명함들도 엇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을 텐데 오래도록 보존되다가 '이 여자 누구더라?' 고개를 갸우뚱하느니 그냥 버림받는 것이 차라리 나은 듯도 하다.

버리기 애매한 것이라 하면 또한 '사인본'이 떠오른다. 출판업종에 종사하면 이래저래 저자 사인이 들어간 책을 받는다. 책을 모아 두기보다는 읽은 후 처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딱히 개인적으로 원해 아닌 이상, 저자 사인은 고맙다기보다 솔직히 아 될 글이... 싶다. 갖고 있기도 찜하고 버리기도 애매하지 않은가.

어떤 작가는 자기 책이 중고서점으로 팔려가는 것이 싫어 일부러 소설 본문 첫 장에 사인을 해서 준다고도 하던데 나는 약간의 심리적 부담도 주기 싫다. 고로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사인하지 않기로 했다. 읽고 안 읽고도 자유, 처분도 마음껏. 이 사인 대신 공란에 깃든 내 메시지다. 어차피 진짜 오래 남을 것들은 형체가 없어도 보존되기 마련이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 7년째인데 아이 안 생겨 남편탓하지 말고 나부터 반성

기혼걸 여자 77년 8월 18일 음력 오전 4~5시
남자 74년 3월 11일

Q 결혼한 지 7년째인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시술이나 입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생각 말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면 초조합니다.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고 싶은데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사주에 화(火)와 금(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극과 극을 오가는 명(命)으로 부부궁에 흉살이 있으면 더더욱 이룩하기 힘든 풍운의 조화가 있게 됩니다. 60갑자(甲子) 조화 속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운의 시험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같은 시험은 음덕과 불신을 가득 모이게 하여 가정에 시련을 만듭니다. 운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 이후, 특히 노후에는 그동안의 모든 애증과 아쉬움이 사라지게 되니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도록 하십시오. 남편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생각도 좋아들며 설사 많으로 운이 없더라도 배려는 운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니 곧 자신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툭하면 회사 그만둬요 내년에 창업 욕심내면 말려야

해피드림 남자 80년 6월 13일 양력 오후 8시

Q 남편이 결혼 후 컴퓨터 AS 일을 그만두고 핸드폰 업계에 취직했는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힘들다며 퇴사했습니다. 이후 친척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들어갔는데 이 또한 자정까지 일하는 게 싫다며 그만뒀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A 사주에 편재 성향이 있으면 작은 월급이나 한곳에 안주하는 생활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의욕이 넘쳐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가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요행수를 바라니 재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014년에 창업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오너 노릇을 하기에는 운이 약합니다. 다른 새로운 직장도 다니기를 기피할 것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침착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이 적은 일은 하기 싫어 손도 대지 않고 관심 있는 것에만 파고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사 그렇게 하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뒷전 재산가 될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풀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9일 음 8월 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논란이 있는 일은 접는 게 좋다. 60년생 어렷사람에게 손 벌릴 일 만들지 마라. 72년생 또 흠결 만큼 결과 감성하나. 84년생 사용 운세라 뭐를 하든 술술.

소: 49년생 해묵은 고민이 해결된다. 61년생 개인 욕심이 분란 만들면 모두 돌라한다. 73년생 급할수록 의젓한 도량 보여줘라. 85년생 고심 끝 편하던 답 얻는다.

호랑이: 50년생 목 타는 사람이 샘 판다. 62년생 기회 왔으니 확실한 변화 이끌어라. 74년생 입술 꼭 깨물고 도전할 일 생긴다. 86년생 재전 물도 다시 보는 신중함 필요.

토끼: 51년생 좋은 문서 들어오니 살피라. 63년생 승부수는 빨리 던질수록 유리하다. 75년생 주변의 충고는 받아들여라. 87년생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익 생긴다.

용: 52년생 진심은 시간 걸려도 통한다. 64년생 매꺽 관련 미루어 과욕은 금물. 76년생 지나친 신중함은 해가 된다. 88년생 오늘 위기는 중대 국면이니 잘 넘겨라.

뱀: 53년생 내 것이 아니라면 욕심 버리라. 65년생 모한 함께할 친구 있어 좋다. 77년생 상사에게 할 말이 있어도 참아라. 89년생 강점을 부각시켜야 뜻을 이룬다.

말: 42년생 시작은 초라하니 결과는 좋다. 54년생 모처럼 배우자와 한목소리 내는구나. 66년생 새 날개인 새 옷을 얻고 열일 난다. 78년생 앞이 싸기 되니 몸조심.

양: 43년생 아랫사람 가르치려 들지 마라. 55년생 칠전팔기의 정신이 필요. 67년생 시련은 잠시이니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라. 79년생 잘나가는 친구 덕 본다.

원숭이: 44년생 적당한 좋은 기운을 즐기게 된다. 56년생 무서운 말장이 많으니 잘 살펴라. 68년생 계획대로 일이 풀려 즐겁다. 80년생 자신감이 충만할 때 더 조심할 것.

닭: 45년생 배우자에게 맞춰 움직여라. 57년생 중재한 일은 성과 얻는다. 69년생 사람이 재산이니 우군 관리에 신경써라. 81년생 좋은 아이디어로 박수받게 된다.

개: 46년생 재력만 든든하면 기회는 온다. 58년생 술자리는 할 돌수록 좋다. 70년생 감정이 앞서면 후회할 일 만든다. 82년생 사업 확김이니 움직이는 일은 삼가라.

돼지: 47년생 혼자서 다 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59년생 바라는 실리를 얻는다. 71년생 좋은 일에 마가 끼니 조심할 것. 83년생 성심을 다하면 돕는 사람이 줄을 선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My friend spent his childhood in California. 이웃과 친구들에 대해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So 누가 길 아래쪽 크고 흰 집을 샀어요?
B Oh, an elderly man rented the house.
A I see. It's a beautiful home.
B I think he is very lucky.

정답 who bought the big white house down the street?

생생영어팁

▶ We have many mutual friends.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We all know each other pretty well (우리는 모두 서로를 잘 알아요.)과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mutual은 '양쪽이 다 해당되는'이란 뜻으로 곧잘 쓰이는 단어이고 mutual friend는 '둘 다 알고 지내는 친구'란 뜻입니다.

ex He is our mutual friend.
그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친구에요.

Do you have many mutual friends?
당신들은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형용사

▶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be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할 때 쓰인다.

명사를 꾸며줄 때	주로 명사 앞에 쓴다
주어를 설명할 때	주로 be동사 뒤에 쓴다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love green shirts. 나는 초록색 셔츠가 좋아.
2. It's cold today. 오늘 날씨가 추워요.
3. She is a beautiful girl.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에요.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bs.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Because of a ______ increase in profits this quarter, Tyro Sportswear employees will receive their first-ever year-end bonus.

(A) dramatically (B) dramatize
(C) dramatic (D) drama

02 No firm can ______ to rely forever only on the strength of its name to sell products.

(A) require (B) afford
(C) suppose (D) depend

01 이번 분기의 급격한 수익 증가로 인해, 타이로 스포츠웨어 직원들은 첫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다.
해설 [illegible] dramatic을 쓴다.
어휘 [illegible]
정답 (C) dramatic

02 제품 판매에서 브랜드의 유명세에만 의존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해설 [illegible] afford를 쓴다.
어휘 rely on ~에 의존하다 strength 힘, 강점 depend 의존하다, 달리다
정답 (B) affor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의견과 이유 및 근거를 말할 때 쓰는 표현

최견 문장 말하기

I agree that TV has destroyed communication among friends and family.
TV가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를 없애 왔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I prefer to write long reports more than to give speeches.
연설을 하는 것보다 긴 글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I think that a small company can't successfully compete against a large company.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I would rather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저는 차라리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It is a good idea to complain about a poor product in person.
불량품에 대해 직접 항의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In my opinion, it is better to be a member of a group than to be a leader of a group.
제 의견으로는 [illegible]보다 [illegible]이 더 낫습니다.

멍군! LG 하루만에 선두 탈환

정성훈 역전 2점포 힘입어 삼성에 5-4 '승'

가을잔치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은 LG가 예비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하루만에 선두에 복귀했다.

LG는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4번타자 정성훈이 역전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두른데 힘입어 5-4로 승리했다.

마무리 봉중근을 8회에 조기 투입하며 삼성의 막판 추격을 따돌린 LG는 전날 패배를 설욕하고 다시 1게임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주말 2연전에서 양팀은 1승씩을 나눠 가졌지만 올 시즌 팀간 성적에서는 LG가 8승7패로 다시 앞서 나갔다.

3-4위가 맞붙은 목동구장에서는 넥센이 박병호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두산에 6-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4연승을 달린 넥센은 3위 두산을 반게임 차로 좇았으며 결승 홈런을 날린 박병호는 시즌 27호를 기록해 이날 역시 홈런을 날린 최정(SK 26홈런)을 1개 차로 따돌리고 홈런 선두를 지켰다.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SK가 경기 초반 대량 득점으로 NC를 10-6으로 물리치며 넥센과의 승차를 4.5게임으로 유지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난타전이 펼쳐진 광주구장에서는 한화가 KIA에 8-7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연장 끝내기' 신난 추신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오른쪽)가 8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결승 득점을 올린 뒤로 팀의 해밀턴을 번쩍 들어 올리며 연장 10회말 4-3 끝내기 역전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날 추신수는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올 시즌 43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한편 LA 다저스의 류현진은 허리 통증을 달고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AFP 뉴시스

프로야구 전적 8일

■잠실

삼성	100	000	120	4
LG	200	100	20X	5

[illegible]

■목동

두산	000	220	010	5
넥센	000	210	12X	6

[illegible]

■문학

NC	000	000	213	6
SK	160	010	20X	10

[illegible]

■광주

한화	202	000	121	8
KIA	004	002	100	7

[illegible]

김세영 짜릿 역전승

유소연 제치고 3억 상금 추가

김세영(20·미래에셋)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8일 충남 태안 골든베이 골프장 오션 밸리 코스(파72·6천5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연장 승부를 벌였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김세영은 버디를 잡아 파 퍼트를 실패한 유소연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4월 프로 데뷔 후 첫 승을 거둔 김세영은 시즌 2승째를 기록했으며 우승 상금 3억원으로 시즌 상금(4억8627만원)에서도 선두로 도약했다.

프로축구 전적 8일

울산	2	1	강원

[illegible]

전북	0	3	포항

[illegible]

부산	0	0	서울

시카고 컵스 임창용이 8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AP 뉴시스

시카고 컵스 임창용 빅리그 데뷔전 ⅔이닝 무실점

초구는 직구 약속 지켰다

14개중 13개 '뱀직구'

임창용(37·시카고 컵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무실점 호투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그는 이상훈-구대성-박찬호에 이어 한·미·일 프로야구 무대를 모두 밟은 네 번째 선수가 됐다.

임창용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임창용은 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팀이 3-4로 뒤진 7회초 1사 마운드에 올랐다. ⅔이닝 동안 3타자를 상대로 볼넷 1개와 안타 1개를 내줬지만 병살타 1개를 뽑아내며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팀은 3-5로 패했다.

일본 야쿠르트 시절 등번호인 12번을 달고 3번째 투수로 나선 임창용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첫 타자인 숀 할턴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공은 커마일(약 146㎞)짜리 낮은 직구였다.

2번째 타자로 야쿠르트 동료였던 아오키 노리치카를 맞이한 임창용은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투심 패스트볼로 승부를 걸었지만 좌전안타를 내주면서 1사 1·2루의 위기에 처했다.

3번째 타자 진 세구라를 상대로 초구부터 역시 투심 패스트볼을 던져 유격수 앞 땅볼 병살 플레이를 유도했고 아웃카운트 2개를 얻어내면서 7회를 무실점으로 마친 뒤 8회초 알폰소 카브레라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날 투구 수 14개 가운데 13개가 직구였고 변화구는 아오키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유일했다. /조성준기자 when@

지성에 인성을 더합니다
남서울대학교 [간호봉사 편]
나는
[세상을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남서울대가 키웁니다